주일예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11월 26일 (제926호)

주일예배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붕우컬럼

경청(傾聽)

갈등이나 다툼, 오해의 원인은 대부분이 경청하지 않은데서 온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신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약 1:19).

세상사 뿐 아니라 신앙도 그렇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롬 10:17). 요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다. 교회에서 뿐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도 말씀을 언제든 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이유는 경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온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가 떨어질 때 그 마음이 길 가 같은 자가 있고, 바위가 가득한 것 같은 자가 있고, 가시 떨기 밭 같은 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모두는 어떤 이유로든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에 결실이 없는 것이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무슨 성장이 있겠는가. 그러나 마음이 옥토인 자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여 백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찌어다"(눅 8:8)라고 외치신 것이다.

경청의 자세는 내 입을 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사람의 말을 앞지르지 않고, 자르지 않고, 끼어들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들어주는 것이다.

명의(名醫)는 환자의 병세를 듣고 오래 진맥하여 일침으로 병을 다스리는 자다. 경청하면서 진맥하면 부부문제가 풀리고, 자식과의, 노사 간의 오해가 풀린다. 자기 이름조차 쓸 줄 모르는 문맹인 칭기즈칸이 몽골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경청이었다. 그는 말한다. "내 귀가 나를 현명하게 만들었다."

현명한 자는 듣는 자다. 때론 침묵이 더 귀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경청하라.

믿음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다

지난 2014년 동경 목회자 세미나 이후 3년 만의 일본 방문이다. 지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여전히 뜨거웠다. 그들이 진정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에 갈급해있는지 바로 알 수 있었다.

목사님은 일본으로 오기 전날 밤에 한숨도 못 주무시고 계속 기도만 하셨단다. 지바 집회를 두고 목사님은 예배 중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단다. 나리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지바 교회로 이동하여 예배를 인도하셨다.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는데, 침노할 수 있는 자는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내 아버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분명한 확신이 있는 자만이 침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의 주인공들을 보면 그들이 많이 배웠거나 가진 게 많아서 그럴 수 있던 게 결코 아닙니다. 과부였던 룻이나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나 고아에서 왕비가 된 에스더나 여섯 남자랑 살던 우물가의 여인이나 따지고 보면 사회적으로 무엇 하나 내세울 게 없는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나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신다는 비밀을 간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 앞에서 체면이나 자존심을 따지는 사람은 부모를 믿지 못하는 자식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우주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신데, 그분 앞에서 무슨 자존심입니까? 그분이 참 내 아버지가 되었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문제랍니까? 자녀는 필요한 것을 달랠 권리가 있고 부모는 자녀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어둠 속에서 궁상떨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구하고 두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제발 기다리세요. 씨를 뿌려놓고 싹이 바로 안 난다고 포기하거나 언제나 날까 자꾸 들쳐보지 말고요. 씨를 뿌렸으면 물을 주고 기다려야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을 피우며 나아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공을 들여야죠. 하나님은 가장 적당할 때 주시려고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건만 믿음이 없어, 기다리지 못해 응답의 역사를 맛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열매를 따는 자는 씨를 뿌린 자가 아니라 열매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자입니다.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고, 기도는 응답 받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깨달으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이제 지난 모든 일들은 잊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1시에 시작한 예배는 4시가 다 돼서야 끝났다. 성도들이 열심히 경청하는 모습에 목사님은 마치 맛있게 먹는 자녀들을 보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요리해내는 어미의 모습 그대로 진액을 다 짜내며 혼신을 다하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배 후에 성도들을 안수하는 중에 연길 출신의 방향화 성도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요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목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목사님은 그녀를 안수하시고는 "내가 너를 위해 그토록 잠도 못자고 기도했었나보다." 하며 크게 기뻐하셨다. 그녀는 일본에 온 이후로 목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 "나만 따라오면 된다." 하는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고 간증하였다. 목사님은 그녀에게 지바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라고 격려하셨다. 타국 땅에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은혜 받고 힘을 얻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오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 그동안 일본 땅에 목사님께서 심은 기도와 땀과 눈물의 씨앗이 처처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며 성장해가고 있는 것이다.

한은택 전도사

일본 지바 예수중심교회 예배 광경

방향화 성도와 함께

도쿄 나리따 공항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지바 성도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2:9~16)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축복을 받자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응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22:37~40).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계명 중 으뜸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엡1:4~6). 곧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예수님도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마10:37) 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어떤 것보다 으뜸이 되어야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잠8:17). '그냥 예쁘다. 사랑한다.' 하고 입발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2:9). 어디 그 뿐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고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시91:14~16).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존귀를 허락하시며,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며 건강과 장수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마디로 요약해놓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14:15). 더욱 자세히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요14:23~24).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하고, 하라는 것은 하는 것'이라 말하겠습니다. 아주 쉽지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가 싫어하는 짓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먹고, 외박하고, 놀음을 계속 하면서 아내에게 '당신 사랑해.' 하면 가증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토 달지 말고, 쥐꼬리만 한 인간의 지식이나 잣대를 대지 말고 그저 '예' 하는 것이 그 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이 감동하실 일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건 같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한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우리는 '축복장'이라고 부릅니다. 손대는 것마다 복이요, 하는 일마다 복이요, 나로 인해 가족이 복을 받고, 짐승까지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세계 제일 가는 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누명을 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들어 애굽의 바로 앞에 세우셨으며, 총리대신이 되는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부입니다. '나를 사랑하면'이 전제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할 것이 없음은 아무리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얼마나 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물 떠나면 죽는 법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세요.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가 다 그 분의 주머니에 있는데(잠8:18), 그 주머니가 누구에게 열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열리지 않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여자가 있습니다. 룻입니다. 그가 보아스라는 재벌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대복을 받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이방여인이었지만 시어미인 나오미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룻1:16).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세요. 다 우상입니다. 나무를 깎고 돌을 깎아 형상을 만든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돈을 더 사랑하여 주일에도 돈 벌러 가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권력을 얻기 위해 상사 눈치 보며 돼지머리에 절하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건강을 챙기느라 주일에 등산하고 골프하는 분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분의 계명대로 살아보세요. 그분이 다 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수단 삼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까지 다 뚫어보시는 분이신지라 당신을 이용해서 돈이나 벌고 권력이나 얻으려는 자에게는 절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죄악을 호흡하지 말라!

계속되는 작정기도를 마치고 귀가한 어느 날이었다. 저녁도 거르고 몇 시간을 부르짖은 터라 뱃속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연신 '뭘 좀 달라'며 아우성을 친다. 물 먹은 솜처럼 늘어지는 몸을 추스르며 찜기에 냉동 만두를 올려놓았다. 하지만 만두가 익어가는 그 짧은 사이에 그만 스르륵, 잠이 들고 말았다.

새벽기도 시간이 되자 저절로 눈이 떠졌다. 그런데 시야가 온통 뿌옇기만 하였다. '아직 잠이 덜 깼나?' 싶은데 이거 연기와 냄새가 장난이 아니다. 뭔 일인가 싶어 두리번거리니, 이게 웬걸, 찜기 채 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허겁지겁 불길을 잡고, 벌겋게 달아오른 찜기를 내려 식히며, 그을음을 닦으랴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랴…. 정말 기도 시간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잠에 취해 잠자리를 고집했다면 어땠을까! 깊은 잠에 빠져 싱크대는 물론 집까지 홀랑 태워먹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나도 좀처럼 탄내가 가시질 않았다. 락스, 베이킹소다, 식초며 커피 할 것 없이 항간에 떠도는 탄내 제거하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닦아도, 닦아도 벽지와 가구 틈새 구석구석 스며든 유해물질은 계속해서 악취와 가스를 내뿜고 있었다.

하지만 이게 웬일, 탄내가 집에서만 나는 게 아니었다. 집을 나와 심방을 갈 때도, 교회에 나와 있을 때도 지긋지긋한 탄내가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닌가! '어디 불이라도 난 것일까, 누가 나처럼 무엇을 태우기라도 한 것일까?' 그러나 원인을 알고 나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다, 누가 실수한 것도, 불이 난 것도 아니었다. 탄내가 진동하는 집에 들어앉아 잠을 자고 숨을 쉬는 동안 그것이(그을음이라고 해야 할까, 유해 가스라고 해야 할까) 내 콧속과 폐부에 자리 잡아 탄내가 난다고 느끼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디서건 탄내만 났던 것이다. 오히려 다른 모든 것은 다 정상이었건만….

죄악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다 보면 결국엔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간다. 죄악을 호흡하다 그것이 일상화되는 순간엔 정상적인 모든 것이 비정상으로 보인다. 오히려 죄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더 나아가 나와 조금 다를 뿐인 상대를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기까지 한다. 자신이 죄악의 프레임(틀)에 갇혀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말이다.

건강한 삶을 살려면 먼저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죄악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호흡하고, 그것이 아무 거리낌 없이 일상화된다면 당신은 결코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가운데서 더 이상 죄가 기생할 수 없도록 환경을 바꾸자. 거짓과 탐욕, 교만과 분냄, 정욕과 온갖 더러운 수단과 방법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과감히 털어내자.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 아름다운 인생 ::

꿈이 따라오는 사람

나에게는 미디어선교라는 꿈이 있다. 그리고 그 꿈을 바라보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렸다. 하지만 너무 앞만 보고 달려서인지 하나씩 놓치는 것들이 생겼다. 그래서일까? 처음의 마음이 변질되어 감을 느꼈다.

그러던 중, 중고등부의 부흥을 위해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함께 청계산으로 기도하러 가게 되었다. 밤이라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아 핸드폰 손전등을 이용해서 발밑을 비추면서 올라갔다. 분명 산을 오르기 위해서 손전등을 비추지만 앞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발밑을 비추는 것을 보고 내 마음 속에 이런 감동이 들었다. 꿈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에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믿음의 선친인 아브라함, 요셉, 다윗과 같은 인물들도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약속을 이루기까지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야 하는 인내의 시간이 길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묵묵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72개국에 복음을 전하시는 총회장 목사님을 뵈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꿈은 보고 좇아간 게 아니라 꿈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 말로 꿈을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이 아닐까?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들고 오늘이 모여서 미래를 만든다. '꿈은 이루어진다(Dreams Come True)'는 말이 있다. 하지만 꿈을 이룬 사람들은 꿈을 향해 좇아가는 것보다 꿈을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이었음을 깨닫는다.

이은성
es2563@naver.com

:: 성경에세이 ::

오계(五計)

아들아!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들고 인생을 지으실 때 다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와 죽으실 때를 다 계획하셨단다.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오실 일이나 우리가 들림 받을 일, 더욱이는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심판까지도 다 계획하셨단다.

하나님도 그리하셨을진대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겠니?

아들아!

지금부터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인생을 살면서 크게 5가지 계획이 필요하단다. 첫째는 생계(生計)란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를 계획하라는 거다. 아주 기본이지. 그런데 이 기본이 안 되면 어느 것도 계획할 수 없는 거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다. 둘째는 가계(家計)란다. 결혼 후에 가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단다. 물질적인 것도 생각해야지만, 정신적인 계획이 더욱 중요할 것 같구나. 요즘 '결포세대'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계획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야. 조금 벌어도 계획하고 노력하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거라고 나는 믿는다. 예전 세대도 다 어려움 가운데서 가정을 꾸려 자식을 키운 것 아니겠니? 셋째는 신계(身計)란다. 바야흐로 100세를 살아야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그에 맞는 육체적 관리도 해야 한다는 말이란다. 적당한 운동과 건강에 좋은 음식과 조절,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계획해야 한단다. 넷째는 노계(老計)란다. 늙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계획해야 한다.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세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다. 머리에 쏙쏙 들어갈 때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고, 저축해야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사계(死計)란다. '죽어서 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해요?' 라고 물을 수 있지.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니? 이 세상은 잠시지만 죽은 후의 세상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러니 당연히 계획해야지.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거야.

계획하지 않는 자는 망하기로 계획한 자란다. 부디 이 다섯 가지 계획을 세워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내세에서도 잘 되는 자가 되거라.

朋友

:: 사랑 & 행복 ::

원칙이 있는 삶

제가 그동안 지켜본 친정아버지는 계획과 실천에 정확하신 분이였습니다. 항상 일별, 주별, 월별 해야 할 일을 빼곡히 적으시고 지체 없이 일을 처리하시곤 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매일 챙겨하시는 일이 적힌 종이를 보고 황당한 마음에 "아빠, 이걸 진짜 매일 다해요?" 라고 여쭤보니 "당연하지, 계획한 건 무조건 해야 한다." 라는 말에 '이러한 아버지 삶의 태도와 원칙이 그동안 가족 모두를 편하게 지내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아버지께서 마라톤을 시작하신 지 딱 10년이 된 해입니다. 아버지는 쉰에 마라톤을 시작하시며 매주 1회 10km를 뛰겠다는 계획을 정하셨습니다. 달리기를 잘하셔서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기에 얼마나 하시려나 싶었는데, 3년쯤 지나서 10km 100회 완주를 기념하시고, 지금은 10년간 매주 빠짐없이 하셔서 약 500회 완주를 앞두고 계십니다. 매주 1회씩 10km를 뛴다는 원칙을 10년간 꾸준히 지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언제 빛을 발하는지 지켜보니 추운 겨울, 눈이 오고 비가오고 매서운 바람이 몰아칠 때 망설임 없이 발을 내딛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켜야할 원칙이 있기에 외부환경이나 소모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삶에 지켜야할 확실한 나만의 원칙이 있다는 것은 외부환경, 타인의 시선, 강압적 규칙 속에서 자신의 확고한 길을 걷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긴 것도, 다윗이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었지만 그에게 손을 대지 않은 것도,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세 번씩 기도한 것도 모두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원칙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문제풀이에 맞는 공식에 대입해야 정확한 답이 나오듯, 삶도 성공하는 원칙에 맞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원칙을 모방하여 체득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걷고 무엇보다 복잡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김고은
khjc77@hanmail.net

:: 간증 ::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2017년 10월 31일, 교회의 증축과 입당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간증을 올립니다.

전북교회는 2006년 4월, 김제에서 3명의 성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했지만 마음 중심에, 평생 전도사의 직분으로 주님을 전하게 하셔도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사역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는지 총회장 목사님께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목사 안수를 주셨고, 2008년 5월, 35세의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개척 3년 만에 부흥하여 김제에서 익산으로 이전 신축하여 '전북'이란 이름으로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시골 성도님들이 그렇듯 모두가 넉넉하지 못해 신축공사는 모두 빚으로 시작되었고, 건평만 100평 가까이 되는 공사를 넉 달 동안 어떤 기술자나 인부도 쓰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로 완공하였습니다. 기술자 없이 신축하다보니 건물이 조립식 창고 같았고, 본당 전면에 교육관도 증축했지만 누가 보기에도 허름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건물 전체가 울리고 교육관 바닥은 아래로 꺼져 소리가 나고 내부 인테리어도 전무했습니다. 성도님들은 별다른 불편을 말하지 않았지만 담임목사인 저로서는 늘 마음 한쪽이 괴롭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9년의 시간이 흘렀고 올 해 들어 어떻게든 증축을 해야겠다는 소원이 간절했습니다. '너의 상상력의 전원을 끄지 말라, 상상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다!'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계속 맴돌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는 단층 공사도 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6개월을 작정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만 허락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건축의 각 분야에 해박한 기술자들을 감동시켜 돕게 하소서!"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말 견적을 받아보니 역시나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제 믿음은 2층으로 올리고 중앙은 3층을 상상하며 기도했고 예배시간에 당돌하게 선포까지 했는데 현실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하고 말리라' 생각하며 다른 곳에 또 견적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형편을 듣고는 단층 가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잘 아는 다른 종합건축 사장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소개 받은 분과 의견을 나누고 결국 공사비를 감안하여 단층으로 하되 나중에 2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하자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종합건축 사장님이 저를 찾아와 하는 말이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으니 원하는 설계를 그려서 저를 주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제가 그동안 상상했던 설계도를 그려서 다시 사장님을 만나니 "목사님! 목사님 교회 공사를 하기로 맘먹은 후부터 밤에 잠도 안 오고 어떻게 하면 잘 할까 고민이 되고, 제 마음이 이상합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목사님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헌금한다는 생각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저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가족들까지 데리고 와서 성도들과 함께 기존의 교육관 철거를 시작으로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제시한 금액만 지불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사장님이 모두 알아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공사기간 중 공사비가 크게 오버되다 보니 약간의 공사비가 추가되었고 그로 인해 제가 직접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공사비를 아끼려고 공사에 필요한 연장들을 광주에 사는 지인에게 빌리러 가는 중 교회 차가 고속도로에서 굉음과 함께 연기가 치솟고 키를 뺐는데도 시동이 꺼지지 않아 죽음 직전의 아찔한 경험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고를 통해 돈 걱정으로 푸념하며 조바심 내는 아내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폐차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내와 저는 마주보고 웃음만 나왔습니다. 앞이 너무나 암담하니 오히려 그 속에서 평안을 찾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공사는 계속되었고 사장님은 인부들 인건비도 자신의 사비로 지불하고 건설 장비의 렌탈료와 자제비등 일체의 추가비용을 받지 않고 3개월의 공사기간 끝에 증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장님은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면서 다른 인부들이 퇴근하면 다시 밤 9시에 나오셔서 새벽 2시까지 저와 함께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없는 형편에 동원 가능한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드리고 증축한 전북교회는 총 공사비의 25%도 들이지 않고 완공이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증축과 동시에 입당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전북교회는 입당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박이 났습니다. 빈자리가 없도록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주셨고, 더욱 또 감사한 일은 폐차된 차량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분을 통해 스타렉스 신차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오직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깨달은 것은 기도 응답은 오직 진실함과 간절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기도해주신 총회장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전북예수중심교회 김영종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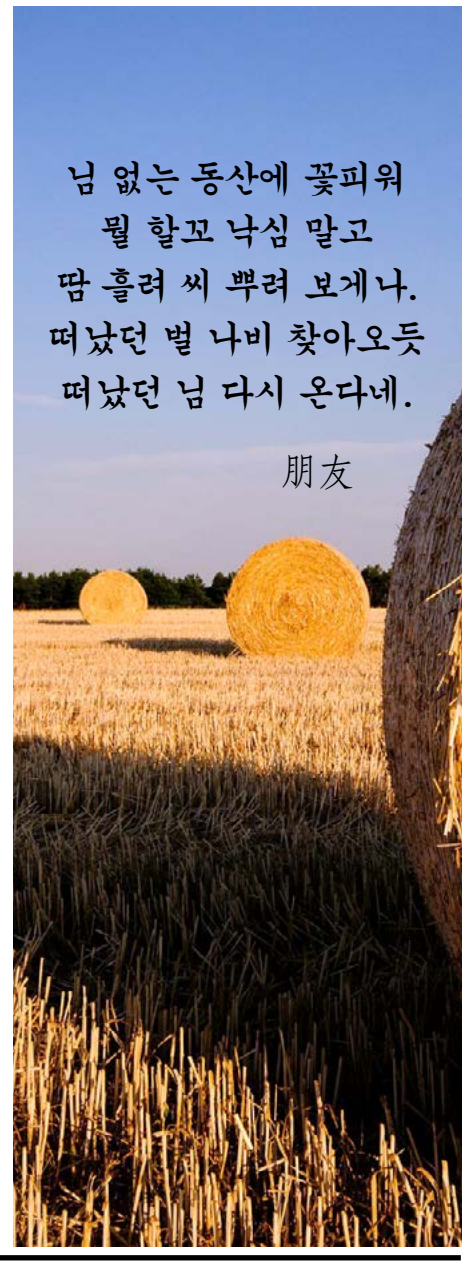
호주 시드니 집회 11월 27(월) 부터 한 주간

:: 생활 속의 잠언 ::

호치민의 리베카 유아원

여기는 호치민이다. 추석 연휴 때 가족여행지로 선택된 곳이었다. 이곳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친절한 현지 한국인을 만났고, 그분께서 베트남의 역사와 사회교육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분은 나에게 한국에서 이십년 이상 교육 사업에 전념했으니 이제 베트남에서도 교육 사업을 해보라고 추천해주셨다. 젊은 20, 30대 인구가 전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열이 높은 나라이며 젊은 부부들이 육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셨다. 하루 종일 아이를 맡아줄 탁아소나 보육원이 베트남에 필요하며, 새로운 교육 사업으로 나에게 적합할 것이라는 게 그분의 이야기였다. 그분의 말에 힘을 얻었고 기도로 준비하였다. 기도와 여러 번의 호치민 방문 끝에 유아원 자리도 훌륭한 곳을 찾게 되었고, 능력 있는 현지인 보육교사도 채용했다. 유아원에 입학할 아이들도 대기중이었다. 장소, 직원, 아이들 등 모든 것이 리베카 유아원을 위해서 예비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내가 호치민에 상주하지 않는다면 유아원 운영은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주위 사람들의 조언이 끊이지를 않았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절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기도로 준비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 자리를 잡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도 가능한 것이다.

고민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몸은 하나인데 서울의 사업장은 어떻게 하나? 주님의 은혜로 이십 수년 기간 중 최고의 성황을 누리는 그곳은 어떻게 하나?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호치민의 리베카 유아원이 원장인 나의 입지 문제로 궁지에 몰렸다. '주님, 호치민과 서울 두 곳 중 어느 곳을 지켜야하는지 알려달라'고 애통하며 기도를 시작한 어느 날,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는 미세한 음성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다. 목사님의 주일 말씀처럼 나를 대신 할 유능한 일꾼을 찾으면 답은 간단하다. 베트남어와 영어,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며 유아원 업무를 할 일꾼을 찾으면 리베카 유아원은 시작될 수 있다.현명한 선택을 하고 훌륭한 일꾼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를 시작했다. 서울의 사업장을 지키겠으니 리베카 유아원에 저를 능가하는 일꾼을 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다. 계획대로라면 12월 1일 개원식이지만 잠정보류를 선택하기로 했다.

주님께서는 늘 기대 이상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알기에 지금의 잠정 보류 또한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믿는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유아원을 맡아서 운영해줄 능력 있는 일꾼이 나타나리라 확신한다.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음을 알기에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께 고개 숙여 기도드린다.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